

순천시 '원예과학원' 본격 출항

농업 신기술 실증시험 교육기관 첨단 스마트팜 현장교육장 운영

농업 신기술의 현장적용 실증 시험기관 역할을 할 원예과학원이 공식 출범했다.

순천시는 그동안 도시민의 농촌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해오던 '산지원에체협장'을 '원예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기술 실증시험 교육기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현장에 보급된 신기술은 품종·작목별 지역 환경적응성, 소비자 선호도 및 시장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고 특히 다년생 과수의 경우 농업 현장에서 다년간 작목을 관리해야 소득이 발생해 지속적인 현장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순천시는 농가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 신기술의 신속한 현장 확산을 위해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원예과학원에서 신기술의 지역 적응성 및 경제성 등을 검증하고 재배 매뉴얼 개발 등을 수행할 과수·원예분야 실증시험포를 운영한다.

또 원예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농업기술에 정보통신분야를 접목하기 위해 농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기상 및 토양 양분 데이터를 수치화하는 작업 수행과 최첨단 스마트팜 기술



농업 신기술의 현장적용 실증 시험기관 역할을 담당할 원예과학원이 최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순천시 제공>

을 적용한 스마트팜 현장 교육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품질 과수 생산에 필요한 꽃가루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발아율이 낮고 검역단계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돼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꽃가루 은행을 운영해 과

수 생산 농가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원예과학원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실습 교육장으로 운영해 신기술·신품종의 현장 적용 때 시행착오를 줄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연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달콤한 ‘광양 바나나’ 맛보세요”

새 소득작물로 부상... '친환경 안전농산물' 시장 경쟁력 확보

광양에서 재배된 국내산 바나나가 소비자들에 선배 주목을 끌었다.

광양시는 최근 새로운 소득작물인 바나나의 시험 재배에 성공해 매달 행사를 통해 시민들을 만났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산 바나나의 특징은 수입 바나나에 비해 나무에서 충분히 성숙시켜 수확하기 때문에 과육이 단단하고 향이 우수하다. <사진>

대부분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장점이 있으며, 검역 과정을 거치는 수입산에 비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시장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바나나 시장은 수입산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국내산 바나나는 친환경 전문매장, 학교급식, 로컬푸드 등을 중심으로 판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서 바나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시설 재배가 필수이며, 일반적으로 정식(아주심기) 후 수확까지는 1년이 걸린다.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바나나를 일반재배보다 3개월 일찍 수확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실증시험해 3월까지 1년 차 시험을 완료하고, 2년 차 재배를 추진해 3년 4기작의 안정적인 재배 적용을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 광양시가 육성한 아열대 작물은 애플망고, 천혜향, 한라봉, 레드향, 백향과, 시설감귤



등 3.1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참다래도 24ha에서 1048t을 생산하고 있다.

최연송 광양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광양시는 애플망고를 비롯한 다양한 아열대 작물을 재배 중이지만, 바나나에 대한 실증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외국산이 주를 이룬 바나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다수확 재배기술, 판로 대책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시험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풍년을 염원합니다” 구례군 산수유 나무 시목지서 제례

제례가 열렸다. 구례군은 이달 12일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구례산수유꽃축제를 취소했다.

지난 20일 구례군 산수유 나무 시목지에서 초현관 김순호 구례군수와 구례유도회, 산동면청년회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종식과 풍년을 염원하는 제례가 열렸다. <구례군 제공>

곡성군, 다음달부터 식당·카페 1회용품 전면금지

곡성지역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이 다시 전면 금지된다.

곡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다음달 1일부터 다시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전면금지에 따라 음식점 내에서 컵, 접시, 용기, 수저 등의 1회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에서도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할 수 없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됨에 따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곡성군은 재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의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군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시하고 읍면사무소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사항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고흥군, 독서 취약계층에 '무료 책배달 서비스'

고흥군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무료 책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도서관 소장 도서를 택배를 통해 무료 대출해주는 서비스로 군민의 독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시행하는 군 자체 사업이다.

운영 대상은 고흥군에 거주하는 독서소외계층으로 장애인, 임산부, 36개월 이하 영유아(양육자),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신청 시 장애인인 장애인복지카드, 임산부는

산모수첩, 36개월 이하 영유아의 양육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별도의 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이용자가 도서관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가능한 도서를 신청하면 최대 10권까지 21일간 대출이 가능하며 택배는 주2회 발송된다.

또 대출 반납 시에도 택배운임을 군에서 부담하므로 이용자는 도서관이나 우체국에 방문할 필요 없이 편하게 가정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관광객들에 여수 아름다운 해안경관 선사

무슬목해수욕장 일대 해양쓰레기 집중수거... 14개 읍면동 확대

여수시가 최근 봄맞이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돌산읍 무슬목해수욕장 일대에서 해양쓰레기 집중수거 캠페인을 이어간다.

지난 18일 열린 행사에는 여수시 해양수산복지국과 돌산읍 직원, 돌산읍 3대 시민운동 실천본부, 여수해양경찰서, 어촌계원과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무슬목해수욕장에 떠밀려 내려온 해양폐기물들을 수거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생활수칙을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캠페인도 벌였다.

시는 봄맞이 해양쓰레기 집중수거 활동에 앞서

지난 1월부터 해양쓰레기 수거인력 20명을 상시 고용해 100t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돌산읍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 3대 시민운동 실천본부와 연계해 자체적인 정화활동을 벌이고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4월부터는 해안과 인접한 14개 읍면동에 해양쓰레기 수거인력을 투입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전국에서 우리 여수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보러 오시는 만큼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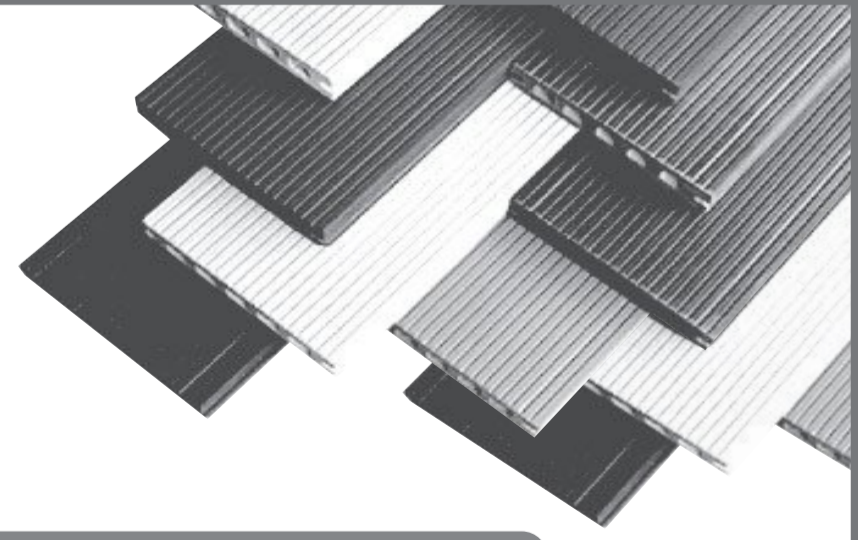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